

보도시점 2026. 4. 13.(월) 06:00 (2026. 4. 13.(월) 석간)

# “통역사 없어도 OK” 외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인공지능(AI)로 해결’

- 외국인 방문이 많은 서울남부센터, 경기지사에서 4월 1일부터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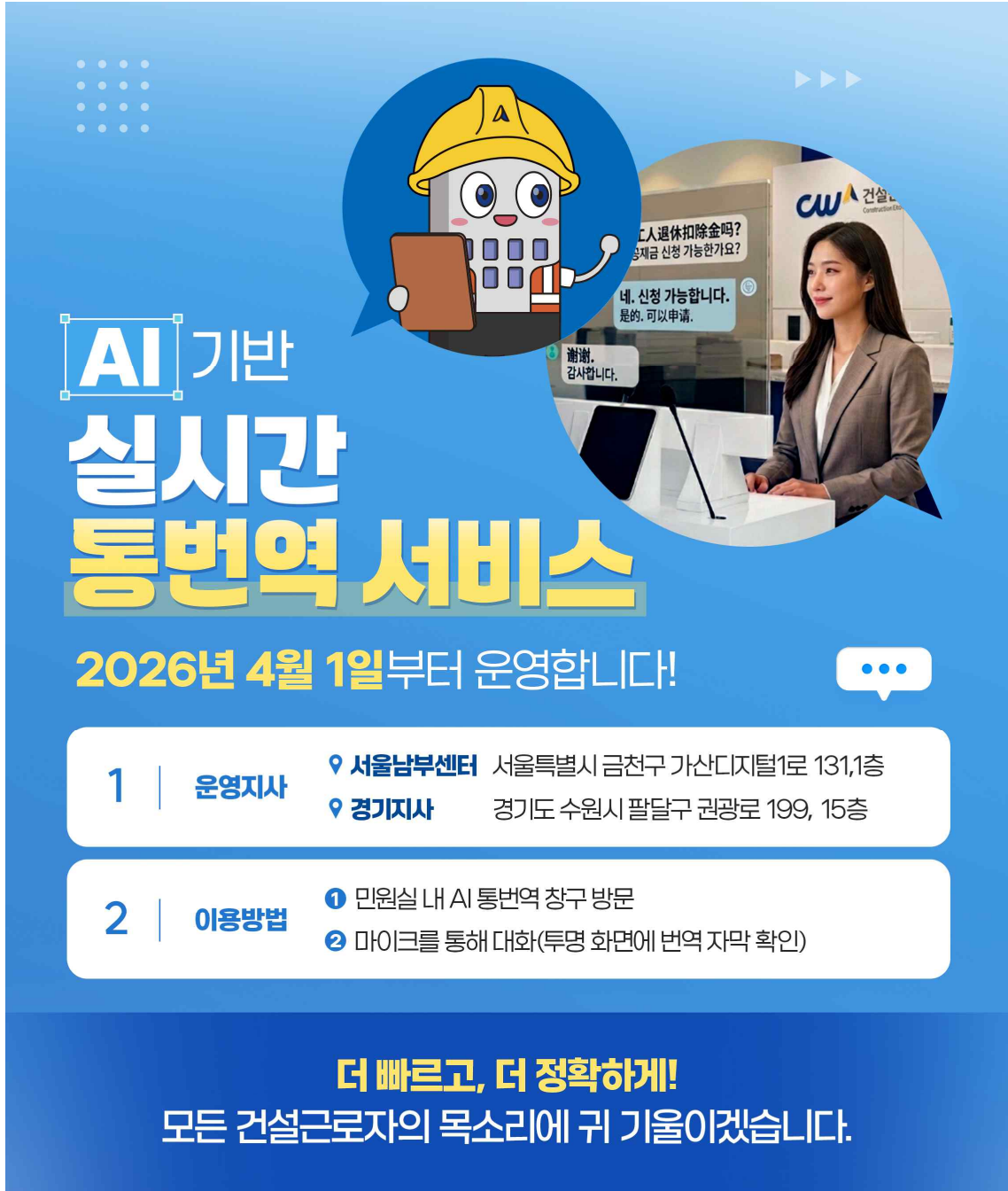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해 주는 서비스로, 외국인 방문 민원이 많은 공제회 서울남부센터와 경기지사예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개시하였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 신청 등 주요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금번 AI 기반 통번역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앞으로도 더욱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AI 통번역 서비스 홍보 포스터 1부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책임자	부 장	채봉주 (02-519-2460)
		담당자	대 리	이승제 (02-519-2462)



The poster features a blue background with a grid of dots in the top left. A central illustration shows a cartoon character wearing a yellow hard hat and holding a tablet, with a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To the right, a woman in a grey blazer is shown at a service counter with a microphone, with a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The main title is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AI-based Real-time Simultaneous Translation Service) in large white and yellow font. Below the title, it says '2026년 4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Operating from April 1, 2026!). The service details are listed in two numbered items: 1. 운영지사 (Operating Office) with locations in Seoul and Gyeonggi, and 2. 이용방법 (Usage Method) with two steps: visiting the office and using a microphone for voice translation. At the bottom, it says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모든 건설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Faster and more accurate! We will listen to the voices of all construction workers.) and the CW Construction Workers' Union logo.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2026년 4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1 | 운영지사

- 서울남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1층
-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2 | 이용방법

- ① 민원실 내 AI 통번역 창구 방문
- ② 마이크를 통해 대화(투명 화면에 번역 자막 확인)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모든 건설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cw** 건설근로자공제회